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마태오 제2주일

성 알렉산드로스와 성 안도니나 순교자

제1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 2,10-16 / 봉독서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 108. B 3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바르톨로메오스와 성 바르나바 사도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바르톨로메오스와 성 바르나바 사도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세상에 전파한 주님의 첫 번째 일꾼들 중에는 바르톨로메오스와 바르나바 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두 분의 사도를 6월 11일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는 12사도 중 한 명이었고, 바르나바는 70인 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사도는 인도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순교하셨습니다. 바르나바 사도는 키프로스 사람으

로,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가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에서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바르나바 사도 또한 키프로스의 살라미나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믿음으로 ‘이리 떼 속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했고, 세상의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의 오류에 맞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한 거룩한 사도들을 교회는 특별히 존경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세라핌 성인의 가르침

성 막시모스 고백자는 성인(聖人)에 대해 “죄에서 이탈하여 하느님과 함께 사는데에 성공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한다.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과 결합한 분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고 하느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이정표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얹어져 가는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방향 잃은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바로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세라핌 성인의 영적 지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라핌 성인

- 밀랍이 열을 받아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날인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고통과 병환의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그 위에 덕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만약 주님께서 사람에게 질병의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면 그에게 인내의 힘도 주신다.
-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삶을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8)
-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 세상에서 는 길을 가고 있는 한 나그네로 생각한다. 그의 소망은 하느님과의 일치이며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느님만을 응시한다.
- 행동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야고보 2,26)
- 실망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아담을 일으키셨다. 하와의 위신을 다시 세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평화의 정신을 세우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한다.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는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깊은 기쁨이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승리이고 끝없는 축제이다. 그 안에서 세상의 기쁨은 단순한 그림자일 뿐이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주님의 승천에 대하여

주님이 승천하신 역사적 사건이 있기 천 년 전에 예언자 다윗 왕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싸움터에서 그 용맹 떨치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영광의 왕은 만군의 주 그분이시다“(시편 24, 7-10)

또한 성 요한 흐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님에게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보다 더 낮은 곳이 없으며, 그리고 (주님 자신인) 사람을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하늘로 오르게 하셨다. 주님은 천사들보다 더 높게 오르셨고, 대 천사들보다도 더 높이 오르셨으며, 헤루빔과 세라핌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 아타나시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6월 11일,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전 세계 정교인과 더불어 한국의 신자들도 총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총대주교님께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 누리의 정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식

대교구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들어가는 길목과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도원 건물 증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비는 27,000,000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3247-13-601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로만 카프착 신부 가족 우크라이나출국

로만 카프착 신부와 가족은 약 한 달가량 일정으로, 지난 6월 5일 우크라이나 고향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무사한 여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6월 3일 주일에 슬라브 교인 에카테리나와 김하늘 군이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결혼 성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사랑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6월 11일(월) 성 바르톨로메오스와 성 바르나바 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